

“언제까지 페인트 냄새 맡고 살아야 하나요?”

기아차 인근 주민들 “악취·소음에 여름철 창문도 못 연다” 호소
악취민원 매년 수십건…시·구청 “냄새 저감 시설 개선 지속 요구”
기아차 “8년간 300억 투자 악취 배출허용 기준치 이하 관리 중”

“이제 막 이사왔는데, 다른 곳으로 옮겨갈때까지 페인트 냄새를 계속 맡고 살아야합니까?”
광주시 서구 광천동 기아㈜ 광주공장 인근 아파트 주민들이 지독한 냄새·소음 문제로 살 수 없다며, 광주시와 서구청에 대책 마련을 호소하고 있다. 지난 6월 240여세대 아파트 준공으로 주민들의 입주자 새로 시작되면서 불만의 목소리가 더 커졌다.

주민들 상당수는 기아㈜ 광주공장 내 페인트 도장부 맡고 있는 냄새 유발 시설이 없다는 점 등을 내세워 악취 근원지로 기아차 광주공장을 지목,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22일 광주시와 서구 등에 따르면 최근 광주시 서구 광천동 기아㈜ 광주공장 주변에서 페인트 냄새 같은 심한 악취로 생활하기 힘들다는 민원이 잇따라 접수되고 있다. 대부분 기아차 광주공장 주변에 세워진 광명하이츠아파트·한국 아텔리움·모아엘가 아파트 입주자들의 민원으로, 창문만 열어놓으면 페인트·시너 냄새와 악취로 눈이 따갑고 머리가 지끈거리 생활하기 힘들다는 하소연들이다.

울 들어 상반까지 광주시와 서구에 접수된 기아차 광주공장을 지목한 악취 민원은 20건에 이르는데, 올해 뿐 아니라 매년 반복되는 민원이라는 점에서 자치단체가 방치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피해 입주민들은 “시청이나 구청에 민원을 제기해도 ‘허용기준치를 넘지 않는다’, ‘시설 개선을 유도 중’이라는 등 매번 형식적인 답변을 들을 뿐”이라며 근본적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기아차 인근 주민들은 2019년 41건, 2020년 35건 등의 악취 민원을 제기했다.

광주시 서구 담당자는 “지난해의 경우 코로나로 공장 가동이 중지된 기간이 길어 민원이 다소 줄었다”면서 “날이 더운 여름철이면 민원이 더 많이 제기된다”고 말했다.

“대형 환풍기같은 기계 돌아가는 소리가 너무 시끄럽다.”, “기아공장 모터팬 소음이 장난 아니다. 밤에는 창을 열고 잘 수 없다” 등의 소음 불만도 거세다.

이들 아파트는 기아차 광주공장에서 대략 짧게는 직선거리로 100m~700m 가량 떨어져 있다.

광주시와 서구는 분기마다 기아차 광주공장 내 배출구에서 악취 시료를 채취한 뒤 보건환경연구원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냄새 저감을 위한 지속적인 시설개선을 요구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서구는 분기마다 기아차 1·2공장 배출구(굴뚝)와 공장부지 경계(광명하이츠 아파트, E-편한아파트) 등에 대한 복합악취 오염도 검사를 실시했

었다. 또 기아차 인접 3곳(광명하이츠 아파트, 상무한국아텔리움, 부견빛고을아파트)에 무인악취포집기를 설치해 수시로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결과는 법정 허용치인 500배율을 넘지 않은 것으로 나왔다.

검사결과 기준치를 넘어선 경우는 없어 인체에 문제가 없다는 게 자치단체 설명이다. 하지만 악취가 발생하는 근본적인 이유를 도장작업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할 뿐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못하면서 정밀 조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제기된다.

이철갑 조선대 직업환경의학과 교수는 “악취로 인한 인체 위해 여부는 함부로 단정 지을 수 없는 부분이지만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악취는 (인근 주민들에겐) 불안 요소로 삶의 질을 떨어뜨리 것은 당연

하다”면서 “입주민들 후각에 대한 민감도에 따른 차이는 있겠지만, 대기업으로서 지역민을 위해 구체적인 모니터링과 연구를 통해 민원이 들어 왔을 때는 작업의 내용을 확인해 악취와 상관 관계를 파악하는 등 보다 성의있게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기아(주) 광주공장 관계자는 “기아(주) 광주공장은 광주 도심 한가운데 위치하고 있는 불리한 여건에도 불구하고 지난 8년간 약 300억 가량을 순수 악취개선을 위해 투자, 악취배출허용기준을 기준치(500배) 대비 약50~60% 수준으로 기준 내에서 관리하고 있다”면서 “사업장에 아파트 신축이 늘어남에 따라 지역주민과의 상생을 위해 악취관리에 있어 설비관리 강화 및 지속적인 투자를 실행 중에 있다”고 해명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牛~ 덥소...물 좀 뿌려주소

연일 폭염이 이어지는 22일 오후 광주 북구 충효동의 한 축사에서 북구청 동물정책팀 직원들이 내부 온도를 낮추기 위해 살수차를 이용해 물을 뿌리고 있다.

/최현배 기자choi@kwangju.co.kr

학폭 가해학생 3명 구속영장 신청 여부 검토

광산경찰, 가담 횡수 많은 학생 대상

경찰이 또래 학생들의 괴롭힘을 견디다 못해 극단적 선택을 한 고교생 〈광주일보 7월 5일 6면〉의 가해 학생 3명에 대해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 중이다.

경찰은 가해 학생으로 특정된 11명 중 가담 횡

수가 많고 범행 정도가 좋지 않은 3명의 신병 처리 여부를 결정할 뒤 나머지 학생들에 대한 조치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광주광산경찰은 지난날 29일 급단전 선택을 한 A군에게 지속적으로 폭력을 휘두른 혐의(공동폭행 등)로 같은 학교 학생들인 B(17)군 등 3명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중이라고 밝혔

다.

경찰은 유족들이 제출한 괴롭힘 동영상과 A군이 다녔던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학교폭력 설문조사를 통해 가해 학생을 11명으로 특정한 바 있다.

경찰은 당시 설문조사를 통해 드러난 학교폭력 사례들을 추가로 확인한 뒤 이들 학생들을 소환해

사실 여부와 범행 시기, 횡수 등을 수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같은 수사 과정에서 A군을 상대로 한 폭행·상해 등의 범행 횡수가 많은 B군 등 3명을 주요 가해 학생으로 보고 수사를 벌여왔다.

한편, A군의 학교폭력 사건은 광주서부교육지원청이 학교폭력심의위원회를 꾸려 처리키로 최종 결정했다.

이에따라 해당 고교 학교폭력 전담기구는 지난 20일 관련 사건을 교육지원청으로 넘겼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기아 취업사기 목사

검찰, 징역 15년 구형

검찰이 기아 취업사기에 연루된 목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22일 광주지법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형사 9단 독 김두희 판사 심리로 열린 목사 A(53)씨에 대한 공판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또 현금 23억과 소유한 부동산 등의 추징도 요청했다.

A씨와 함께 취업 알선에 가담한 B목사에게는 징역 2년과 추징금 8000만원, C장로에게는 징역 1년, 추징금 4000만원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기아차 정규직 채용을 시켜 줄테니 보증금 명목으로 3000만원을 받아 주변인 D씨에게 2000만원을 전달하고 1000만원을 가로챈 것을 비롯, 221명에게 21억1300만원을 받아쟁긴 혐의(사기 등)로 기소됐다.

주범 D씨는 자신이 다니던 교회 목사인 A씨를 통해 소개받은 교인 등을 상대로 취업 사기 행각을 벌였다.

D씨는 지난 2019년 2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취업지원자 616명으로부터 기아차 공장 생산직군 정규직으로 채용시켜주겠다며 취업보증금 명목으로 131억원을 가로채는 등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근로기준법 위반 등)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이날 법정에 출석한 사기 피해자들은 “종교인이라는 특별한 위치에 있는 A씨를 믿고 돈을 건넸을 뿐 주변인 D씨의 존재를 알지 못했다”면서엄밀해달라고 탄원했다.

A씨 등에 대한 선고는 오는 8월 19일 광주지법에서 열린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아내 폭행 방치해 사망케한

80대 남편 2심도 징역 8년

광주고법 형사1부는 22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82)씨의 항소심에서 A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8년을 선고했다.

A씨는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검찰은 A씨가 폭행으로 부인이 사망할 수도 있음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고 주장하며 항소했다.

재판부는 “원심에서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A씨가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는지 알 수 없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4일 나주시 자택에서 아내 B(81)씨를 폭행하고 마당에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아내가 평소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있었고 범행 당일 술을 마신 뒤 아내와 다툰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 직후 음독해 병원 치료를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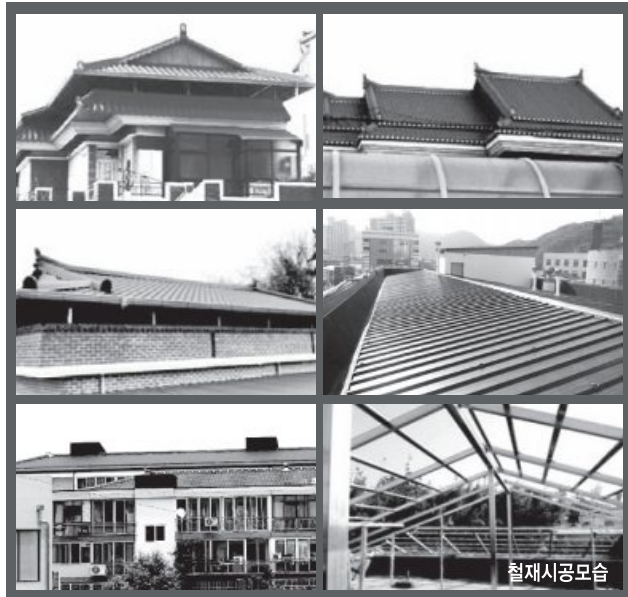
1심 재판부는 A씨가 50년 이상 함께 산 아내를 폭행하고 방치했으나 일부 자녀가 처벌을 원지 않는 점을 고려해 형을 선고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모 슬라브목상 칼라강판 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옥상지붕공사

슬라브 주택, 데스리 및 한옥 등은
칼라강판 지붕공사



옥상 스틸방수

갈라지고 물이 새는 옥상바닥
겨울의 차가운 냉기! 방수와 단열 한번에 해결!
여름의 뜨거운 열기!



옥상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무료견적 디자인 등록 제30-0934833호
광주·전남 같이 하실 분 모십니다. 제30-0949873호

MODERN (트윈스틸)

시공 문의

062)531-3530, H. 010-9229-3530



담양군공고 제2021-1272호

담양군관리계획(주차장, 공공청사)결정(변경)(안) 주민공람공고

담양군 담양읍 남산리 일원의 담양군관리계획(주차장, 공공청사)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주민 의견청취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1. 7. 23.

담 양 군 수

1. 계획의 개요

- 계 획 명 : 담양군관리계획(주차장, 공공청사) 결정(변경)(안)
- 위 치 : 전라남도 담양군 담양읍 남산리 277번지 일원
- 주요내용
- 주차장 구역 변경 : 기정 22,723㎡ → 변경 : 21,059㎡ (감 1,664㎡)
- 공공청사 신설 : 1,664㎡

2. 담양군관리계획(주차장, 공공청사) 결정(변경)(안) 조서 및 도면 : 다음

3. 관계도서 : 계획생략(공람장소 비치)

4. 공람기간 : 공고일부터 14일간

5. 공람장소 : 담양군청 도시디자인과 및 담양읍사무소

6. 주민의견 제출방법

-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 내 서면으로 작성하여 담양군청 도시디자인과 또는 담양읍사무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은 담양군 도시디자인과 ☎ 061-380-309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본 공람공고(안)는 최종 결정된 내용이 아니며, 앞으로 행정절차 이행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상속한정승인공고

- 피상속인 : 망 임종철(720325-XXXXXX00)
- 최후유조 : 광주 광산구 소촌로66번길 20-5 201동 1108호(소촌동, 소촌2차모아드림타운)

피상속인 망 임종철의 상속인은 위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하여 상속한정승인을 광주가정법원 2021년 단 3410호로 신청하여 2021년 7월 6일 심판 인용되었으므로 피상속인에 대한 일반채권자 및 수증자는 공고일로부터 신고기간에 채권신고를 하시기 바라며 위 기간이 지나면 청산에서 제외됩니다.

2021년 7월 23일

- 상속인 : 1. 임종일(630428-XXXXXX00) 광주 북구 동촌길58번길 12-5 (청봉동)
- 2. 임종문(660228-XXXXXX00) 광주 광산구 소촌로66번길 20-5, 201동 1108호(소촌동, 소촌2차모아드림타운)
- 3. 임종순(810229-XXXXXX00) 서울 성북구 안암로97가길 55, 402호 (안암동5가)
- 4. 임종선(700515-XXXXXX00) 안양시 광도읍 광도로 150, 105동 901호 (에이씨에스위홈아파트)

• 신고기간 : 2021. 7. 23. ~ 2021. 10. 1.

• 재판신고장소 : 상속인 1. 임종일의 주소



7월25일(일)

▲광주씨산악회 7월25일

(일) 강원도 동해, 삼척 시&40년만에 개반, 한국 의장가계, 두타산(청옥 산)협곡마천루, 배틀릿지 무릉계곡 산행, 임주체육관 05:00, 동야병원 05:05, 롯데백화점 05:10, 광주역 05:15, 문예후문 05:25, 비엔주차장 05:30 * 다음카페 광주씨산악회 ☎ 010 7794 6920

은사님을 찾습니다

현재 75세 정도이고
전라남도 지역에서
초등학교 교사를 하신
양송자 선생님을
찾습니다.

010-9989-7465

기 도 희

분 실 공 고

- 아파트임대차계약서 및 합의서 광주광역시 광산구 용평철길로20-20 (우산동, 우산동 중흥S-클래스 리버티 110동 802호)
- 계약자 : 박 경 남
위와 같이 분실공고함.
2021년 7월 23일

ABC협회인증 호남 최대 발행부수

독자와 함께 걸어온 길 69년

광주일보 문화예술매거진

세상

광고문의 (062)227-9600
신문구독 (062)220-0551
예향구독 (062)220-0550

光州日報

지국안내

북 구

- 동 광 266-1920
- 문 흥 266-1960
- 북광주 525-3761
- 신 안 222-8171
- 양 산 571-7658
- 오 치 266-7601
- 융 봉 433-1503
- 우 산 433-1503

동 구

- 남 광 673-6836
- 동 명 222-9054
- 동 부 225-6001
- 중 앙 222-9054
- 중 장 222-8171

남 구

- 남 부 673-6836
- 백 은 651-1833
- 봉 신 673-6836
- 송 하 675-6605
- 신 월 671-7276

서 구

- 광 천 382-5788
- 상 무 372-2352
- 서광주 369-1625
- 윤 천 376-7153
- 치 평 376-6511
- 동 안 603-0311
- 화 정 369-1625

광산구

- 윤 남 952-1687
- 월 국 959-1920
- 철 단 973-2900
- 하 안 955-0451
- 광 산 944-0444